

大學入試와 論述考查

金 尙 鎬

(中央大 教育學科)

I. 現行 大學入試制度的 虛

오늘의 대학입시는 '過熱競爭'과 '超大型考查'로 특징지을 수 있다.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기만 하는 고교생의 입시준비는 入試競爭을 過熱 상태로 치닫게 하고 있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만 가는 응시생의 수는 大入考查를 超大型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단 1점을 놓고 다투어야 하고, 또 80만에 육박하는 응시자의 시험과 채점을 단 1개월 정도로 완전무결하게 마무리지어야 하는 상황 속에서 등장한 客觀式 學力考查는 어쩔 수 없는 최선책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극소수의 합격자를 제외하고는, 안전지망의 덕을 본 합격자나 눈치·요행·배짱의 덕을 본 합격자는 합격자 나름대로, 불합격자는 불합격자 나름대로, 학부모는 학부모 나름대로, 고교 교사는 교사 나름대로, 그리고 대학에서는 대학 나름대로 客觀式 學力考查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도대체 객관식 학력고사가 그토록 불만의 대상이 되어 새삼스럽게 大學別 論述考查가 대학입시의 보완책으로 등장하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이 문제는, 1984년 4월에 문교부가 발표한 현행 대학입시제도의 改善案 중 '86학년도부터 大

學別로 論述考查가 부과될 것이라는 내용이 밝혀짐으로써, 여러 관계 전문가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첫째, 현행 대학입시 학력고사에서는 客觀式評價의 制限點이 그대로 노출되어 왔다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오늘의 대학입시 상황은 大學의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하여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는 한 치의 오류나 착오도 허용되지 않는다. 더우기 엄청난 양의 답안지를 제한된 시간 안에 신속·정확히 채점하자니, 考查의 信賴度가 우선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고사의 신뢰도를 보장하기 위하여 客觀式考查에 집착하다 보니, 이 고사가 초래하는 문제점이 개선 또는 보완되지 않으면 안 될 상태로까지 부각되기에 이르렀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현행 客觀式 學力考查는 특정한 知識이나 情報를 기억하거나 해석할 수 있는 能力을 측정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것은 出題能力의 문제이기보다는 객관식이라는 出題形式이 안고 있는 원천적인 제한점인 것이다. 또한 이러한 현행 고사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구성하여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없다. 더우기 정답을 모르는 問項에서는 학생의 맹목적인 推測을 조장하게 된다.

앞으로 대학입시에서 부과하기로 된 大學別 論

述考查는 바로 이러한 客觀式 學力考查의 제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데 그 장점이 있다. 비록 논술고사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기는 하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高次的 能力을 측정하려는 논술고사에서는 응시자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글로 구성·표현하도록 한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논술고사는 객관식 고사와 크게 대조적이며, 이것은 현행 학력고사의 內在的 缺陷을 보완하여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현행 대학입시 학력고사에서는 高等學校의 교육을 잘못 先導하여 왔다는 것이다.

대학입시에서 어떤 教科目에서 무슨 內容을 어떻게 出題하는가가 고등학교의 교육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어제 오늘의 현상이 아니다. 그래서 대학입시가 바로 고등학교의 教育目標가 된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대학입시에서 출제되지 않는 內容은 고등학교 학생의 관심 밖으로 사라져 버리며, 대학입시에서 출제되는 形式은 곧바로 학생의 學習方法에 영향을 미친다. 대학입시의 객관식 고사가 주로 記憶力을 측정할 뿐이고, 探究力·創意力·構想力·表現力 등을 측정하지 못하니, 입시 준비를 하는 학생들은 이러한 高次的 能力을 익히려고 하지 않는다. 또한, 교사들도 학생의 高次的 能力의 증진보다도 당장의 大入考查에 대비하는 교육에만 치중하게 된다.

비록 지금 당장에는 '86학년도에 대학입시를 치를 학생들이나 그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논술고사의 성격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해 이에 대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大入에서의 논술고사 실시가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미칠 영향을 장기적으로 예상하여 볼 때, 이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이다.

세째, 新入生 選拔에서 대학의 自律性이 제한되어 왔다는 것이다.

1980년의 '7·30 교육개혁'과 함께 대학별 入學本考查가 폐지됨에 따라 신입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대학의 自律的 役割이 크게 약화되었다. 대학은, 남이 실시한 考查에서 얻은 점수를 가지고, 때로는 눈치를 보면서 지원한 학생들 중에서 高得點者의 順으로 받아들이는 수동적 역할만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학생의

입장이나 대학의 입장 양쪽에서 볼 때, 현행 大學入試는 대학과 학생이 서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학교를 선택하는 역할만이 강조된 일방적 통로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 이것은 師弟間의 강한 連帶感을 갖는 데 있어서도 그 출발부터가 잘못된 것이다.

모름지기 한 대학의 역사와 전통은 그 대학 스스로가 이룩하여 나가야 할진데, 대학에서 키울 학생들을 그 대학이 마음대로 선발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되어서는 그 출발부터가 잘못된 것이다. 大學別 論述考查의 등장은 분명 학생 선발에 있어서 대학의 역할을 강화시켜 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네째, 현행 大學入試에서는 資格考查의 機能이 약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현행 大入學力考查의 전신인 大學入學 豫備考查에서는 학력고사의 성격과 함께 대학 진학의 適格者를 선별하는 資格考查의 성격도 있었다. 그런데 '80년대에 들어와서 大入學力考查에서 대학에 응시 자격을 결정해 주는 기준, 즉 커트라인이 없어짐으로써, 이 학력고사에 응시한 자는 누구나 대학에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定員未達 현상의 장기화로 존재 위기에 놓였던 專門大學을 구제하고, 또 일부 하위권 응시자에게 제도적으로 좌절감을 주지 않기 위한 배려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高等教育으로서의 大學教育을 이수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별하는 資格考查의 기능을 大學入試에서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논술고사의 출원은 현행 대학입시의 이러한 취약점을 보완하여 줄 수 있다.

II. 大學別 論述考查에의 期待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86학년도부터 대학별로 실시될 論述考查는 현행 대학입학 학력고사의 虛를 메꾸어 줄 것으로 기대되는 방안으로 등장한 것이다. 논술고사에 대한 기대는 다음의 두 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

첫째, 高等學校에서의 高次的 能力教育에 기여할 것이다.

7·30 教育改革이 겨냥한 중요한 표적은 정상

케도를 벗어난 高校教育을 올바르게 이끌어 가는 것이다. 대학입시와 관련하여 볼 때, 고교 교육에서의 非正常性이란 객관적 학력고사에 대비한 교육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暗記·傳達·解說 위주의 注入式 教育에 급급하고 있을 뿐, 학생의 高次的 能力 증진을 위한 教育이 完備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도대체 高次的 能力이란 무엇이며 또 왜 필요한가? 고차적 능력에 대한 定義는 학자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내려질 수 있다. 이것은 마치 知能이나 態度의 定義가 여러 가지인 경우와 흡사하다. 고차적 능력은 高等精神能力이란 말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여기에는 적용력·분석력·종합력·평가력·비판력·표현력·창의력·문제해결력·사고력 등이 모두 해당된다. 이들 능력 중에는 상호 중복되는 것도 물론 있다. 여하간에 高次的 能力이 무엇인가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무엇인가를 스스로(때로는 獨創의으로) 생각하고(思考力 또는 探究力), 자신이 생각한 바를 論理的으로 또는 說得力 높게 조직하고(構成力 또는 綜合力), 조직된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表現하는(表現力) 人間能力”¹⁾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高次的 能力을 중요시하는 이유로는 다음의 몇가지를 들 수 있다.

- ① 高次的 能力은 學習한 바를 日常生活의 諸問題를 해결하는 데에 연관지을 수 있게 한다.
- ② 구체적인 知識은 쉽게 잊혀지나, 高次的 能力은 오래도록 지속되고 또 사용될 수 있다.
- ③ 高次的 能力은 學習을 계속하고 급변하는 世上을 헤쳐 나갈 수 있는 基本的 特性이 될 수 있다.
- ④ 高次的 能力은 學習을 계속하여 새롭고 즐거운 것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다.

이런 高次的 能力은 하루 아침에 습득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을 통해서 서서히 습득되는 것이다. 예컨대, 高3 일년 동안에 집중적으로 논술고사에 대비하는 교육방법은 별로 효과가 없다. 따라서 하급학교 교육에 직접적으로 영

향을 미치는 대학입시에서 고차적 능력의 측정을 위한 논술고사의 실시는 바로 고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촉진제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둘째, 大學進學 適格者의 選拔에 기여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論述考査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첫번째 유형은 教科內容 評價型 論述考査로서 각 教科의 내용을 중심으로 암기력·이해력을 비롯하여 적용력·분석력·종합력·평가력 등의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다. 이런 고사에서는 특정한 교과내용에 관한 知識이 없이는 답안을 작성할 수 없다. 예컨대, 독일이나 불란서에서 大學入學資格試驗으로 실시하는 Abitur 나 Baccalauréat 등이 이런 유형의 논술고사에 속한다.

두번째 유형은 表現能力 評價型 論述考査로서 특정한 교과내용과는 관계 없이 作文能力을 측정하는 데 그 초점을 둔다. 예컨대, 미국에서 入學試驗프로그램(Admissions Testing Program: A.T.P.)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學力考査(Achievement Test: A.T.) 중의 영어작문시험(English Composition Test with Essay: E.C.T.E.)이 이 유형에 속한다.

세번째 유형은 思考能力 評價型 論述考査로서, 특정한 교과내용과는 전혀 무관하게 상식을 기초로 답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出題하고, 철자나 문법 등은 채점되지 않고, 주로 주어진 主題를 어떻게 해석·분석·구성하여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표현할 수 있는지를 중요시한다. 예컨대 일본에서 大學別로 실시하는 제 2차 시험에서는 교과내용과는 관계 없는 素材로 ‘小論文’을 쓰도록 하는 논술고사가 이 유형에 속한다.

우리나라에서 '86학년도부터 대학입시에서 실시될 대학별 논술고사는 위 세번째 유형, 즉 高次的 能力을 평가하는 考査型에 속한다. 요컨대 이 논술고사는 “대학 입학생의 高次的인 思考能力을 평가하기 위하여, 특정 教科目的 內容에 구애받지 않는 素材를 대상으로, 論文型 형태로 출제되고, 主觀的 方法으로 採點되는 考査”²⁾로 정

1) 金塚權, “論述式考査와 客觀式考査의 教育的 意義”, 「論述式考査의 教育的 意義와 施行方法 探索」, 中央教育研修院, 1984, pp. 13-14.

2) 金宗西, 邊昌鎭, 黃禎奎, 「大學入試制度研究—大學別 論述考査의 出題, 採點 및 查定方法에 관한 研究—」, 文敎部, 1984, p. 3.

의될 수 있다. 이러한 논술고사는 고교 교육의 정상화에도 기여하지만 동시에, 대학에서 고등 교육을 이수할 適格者를 선발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高次的 能力의 소유자가 왜 大學進學의 適格者인가? 대학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는 미래의 指導者를 양성하는 것이다. 지도자의 양성을 위해서 대학이 해야 할 일차적 과제는 지도자적 자질을 갖추고 있는 젊은이들을 선발하는 일이다. 지도자의 자질이 무엇이 되든간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생각할 수 있는 힘”, 또는 “생각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다. 이러한 능력은 인간의 知力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다.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 많은 知識을 알고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발전 가능성이 크다.

大學은 그 문이 아무리 넓어진다 하더라도 누구나 다 원하기만 하면 들어갈 수 있는 교육기관이 아니다.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知的 行動의 측면에서 볼 때 생각하는 힘, 즉 高次的 能力이 우수한 사람이다. 현행 客觀式 學力考查로는 이러한 능력을 선별하기가 매우 어렵다. 내년부터 각 대학에서 응시생들에게 부과할 論述考查는, 出題의 妥當度가 있을 경우, 高次的 能力이 있는 사람을 선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Ⅲ. 앞으로의 課題

해방 이후 40여 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大學入試制度는 크게는 9번 그리고 작게는 거의 매년 바뀌어져 왔다고 한다.³⁾ 그래서 내년의 大學別 論述考查의 실시를 ‘또 하나의 朝令暮改’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우리에게 생기기 쉽다. 논술고사의 定着을 위해서 고등학교 교육에서 고려되어야 할 문제와 대학에서의 논술고사 시행에서 고려되어야 할 문제를 앞으로의 課題로 생각하여 보고자 한다.

첫째, 고등학교에서의 高次的 能力 增進을 위

한 教育은 長期的이고 探究的이어야 한다.

고교에서 논술고사에 대비한 교육은 지식이나 정보를 “압기시키고 이해시키는 注入式 教育”으로부터 개개 학생 스스로가 생각해 보고 이틀 글이나 말로 표현해 보고 또 남의 글이나 말을 비판·토의해 보는 探究式 教育이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탐구식 교육의 성과는 短期的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長期的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高次的 能力이란 高3 일년 동안에 집중적으로 노력한다고 습득되는 것이 아니다. 바람직하기로는 국민학교 때부터 스스로 생각하고 그 생각을 꾸며서 발표하고 토론하는 學習經驗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다. 또한 논술고사에 대비한 교육은 國語科의 독점물이 아니고, 모든 敎科에서 공통 추구되어야 한다.

둘째, 論述考查의 성공적인 定着을 위해서는 높은 反映比率과 타당한 出題가 이루어져야 한다.

'86년도에서는 대다수의 대학에서 논술고사의 反映比率을 10點 수준에 묶어 놓을 예정이다. 이렇듯 반영비율이 낮은 때에는 주로 두 가지 이유가 있다. 그 하나는, 전에 경험한 바 없는 논술고사를 조심스럽게 치루려는 데 있다. 다른 하나는, 각 대학이 大入 學力考查의 高得點者를 되도록 많이 유치하려는 데 있다. 논술고사의 정착을 위해 경계해야 할 요소는 바로 이것이다. 현행 대학입시의 虛를 상당히 깨울 것으로 기대되는 논술고사의 反映比率이 앞으로도 계속하여 총점의 2% 수준밖에 안 된다면, 논술고사의 존재가 무의미하게 될 것이다.

또한 논술고사의 존재 가치는 高次的 能力을 얼마나 충실히 평가할 수 있도록 出題되느냐에도 달려 있다. 객관식 문항의 출제에 비하여 논술식 문항의 출제가 쉽다고 여길지 모르나 이것은 위험한 생각이다. 잘못 출제된 論述式 考查는 차라리 없었던 것만 못하다. 명실공히 高次的 能力을 평가하는 論述考查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妥當한 出題가 이루어져야 한다. *

3) 全成進, 「大學入試에서의 論述型考查 導入」, 高麗大學校 教育問題研究所, 1984.